

전남대도 2개 폐과...광주 7개대학 5년동안 27개 학과 사라져

학벌없는시민모임 “교수들도 전공없어 타과 변경”
 “교육부·광주시 대학협력팀 머리 맞대 대책 마련”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이 위기인 가운데 전남대를 비롯해 지역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가 폐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학벌없는 시민모임이 지

역의 7개 4년제 대학으로 제출받은 ‘폐과현황’(2018년~2022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27개 학과가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송원대가 6개 학과로 가장 많았

으며 조선대·호남대 각 5개학과, 남부대 4개학과, 광주대 3개학과, 전남대·광주여대 각 2개학과 순이다.

폐과에 종사했던 교원은 총 97명으로 송원대가 26명, 광주대 16명, 조선대 15명, 남부대 14명, 호남대 11명, 전남대 8명, 광주여대 7명이다. 이 중 61명은 다른 학과로 변경했으며 3~4학년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강의를 이어하고 있는 교원은 28명이다.

또 일부 교원은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 삭감, 직권면직을 당해 소송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기에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한 학과는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땀집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인 만큼 교육부와 광주시 전담부서인 대학협력팀이 적극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환기자



세뱃돈 교환 위해 신권 정리

16일 전북 전주시 양우신협 본점에서 직원들이 세뱃돈 교환에 사용할 신권을 정리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 ‘반토막’ 비상

지난해 광주·전남 무역수지 흑자폭이 지난 2021년 대비 4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무역수지 흑자액도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0.8%나 떨어지는 등 무역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2022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수출(12월 말 누계 기준)은 67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한 반면, 수입은 594억4000만 달러로 32.4%

나 증가해 무역수지는 79억4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1년 무역수지 흑자액 144억 9700만 달러 대비 45.2%나 떨어진 수치다. 지난 12월에도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2% 감소한 49억2500만 달러, 수입은 5.8% 증가한 46억7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5400만 달러 흑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무역수지 흑자액 13억2400만 달러에 비해 80.8%나 떨어진 수치로, 수출 감소

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광주지역은 수송장비와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고 전남지역은 화공품과 철강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4% 떨어진 13억6100만 달러, 수입은 9.2% 증가한 7억8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35억6400만 달러, 수입은 5.1% 증가한 38억9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억 2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승호기자

한숨 돌린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사업비 PF 상황 만기에 자금 조달 불능 위기에서 사업비 대출 연장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조합이 사업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 만기에 따른 사업 자금 조달 불능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얻어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사업비 대출(최장 만기 5년 연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조합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동구 남광교회에서 사업비 PF 상황 만기 대책 마련을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다.

조합은 오는 29일 대출 만기를 앞둔 사업비 PF 상황과 관련한 대주단(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 3곳)과의 추가 대출 제안서 승낙 여부를 조합원들에게 물었다.

대주단은 지난해 8월 조합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사업비 PF 상황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당시 좌초 우려가 점쳐졌던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어 자금 검색 등을 우려,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과 현산은 2019년 5월 신한은행 등 시중 은행 3곳으로 이뤄진 대주단과 사업·대출 약정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사업비 1574억 원을 조달해왔다.

당초 조합은 2020년 광주시 전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후분양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조정지역 해제 등이 검토되면서 지난해 6월 일반 분양에 대해 선분양 방식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등으로 사업이 1년 여 넘게 연기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해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 인해 사업비 PF 상황 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당장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조합은 사업비 PF 상황 만기 연장을 위해 HUG로부터 보증을 받는 방법을 찾아 현산, 대주단과 추가 사업비 규모와 만기 일정을 협의했다.

협의 결과 대출 규모는 2000억 원과 만기 연장 60개월로 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수입금과 조합원 부담금으로 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찬성을 묻는 총회 결과 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면서 HUG 보증을 통한 대주단 대출이 결정됐다.

조합은 오는 20일 전후 HUG의 보증 심사를 마친 뒤 25일 대주단과 대출 협의서 작성을 완료, 사업비 수혈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에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최이슬기자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